

보도일시	즉시 사용	배포일시	2021. 7. 16 (금) 배포
비 고	# 공동배포 : 기재부, 고용부		
담 당	국무조정실 청년정책총괄과	과장 류승목, 사무관 연희정 (044-200-6323, 6328)	
	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	과장 이병원, 사무관 원중혁 (044-215-8510, 8515)	
	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	과장 장보영, 사무관 안재영 (044-215-7230, 7233)	
	고용노동부 청년고용지원과	과장 김상용, 사무관 구동영 (044-202-7451, 7438)	

「한쪽선 청년 지원 늘리고...반대편은 줄이고
‘오락가락’ 청년정책」 보도 관련

- ‘21. 7. 15(목) 한겨레 -

1. 보도내용

- “한쪽선 청년 지원 늘리고...반대편은 줄이고 ‘오락가락’ 청년정책” 기사에서,
 - 정부가 ‘한국판 뉴딜’에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 대상을 제한
 - 한국판 뉴딜에 청년 정책이 신설되면서 추진 주체가 모호해짐

2. 설명내용

- ① 정부는 청년 지원을 확대·강화하는 일관적인 정책 기조하에서 이번 한국판 뉴딜 2.0에 포함된 청년정책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 - 이번 한국판 뉴딜 2.0에서는 기존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의 대상을 중소·중견기업 근로자에서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, 소득계층별로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*을 마련하였습니다.

* 청년내일저축계좌(연소득 2,200만원 이하), 청년희망적금(총급여 3,600만원 이하),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(총급여 5,000만원 이하)

- 이 과정에서 기존에 시행 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보다 취약한 월 급여 300만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조정하였습니다.
- ② 한편, 청년정책은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 하에 수립·추진되고 있습니다.
- ☞ 따라서, 청년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며, 추진주체가 모호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